

## 질서란 무엇인가

집 한채를 지어도 그렇다. 수많은 건축자재가 세각기 가로세로 받치고 얹혀서 방도 되고 마루도 된다. 그 중에 한 개라도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제각기 받쳐야할 것을 받치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은 허물어지고 만다. 그래서 건축자재 하나하나 서 있어야 할 위치, 제각기 맡아야할 구실, 또 서로 접合되어 생기는 力學關係가 새대로 틀에 맞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집 한채를 지탱해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서요, 조화의 관계이다.

집 한채를 지탱하는데도 그같은 질서와 조화가 요구되는데 하물며 온갖 사람들이 서로 얹히고 섭허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체 — 그 사회속에 질서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질서는 모든 존재의 기본원칙이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다. 대자연속에는 우리가 모두 알 수 없는 심오한 질서와 조화가 있는 것이며 인간사회도 그 같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 질서가 있다.

다만 자연의 질서가 태초부터 있어온 原初의 것이라면, 인간의 질서는 부단히 개선되어온 창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질서있는 사회는 안정된 사회이며 안정된 사회는 성장하는 사회가 된다. 질서가 잡혀 사회적인 모든 관계가 적절하게 조화될 때 그 사회의 内的力量이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처럼 성장과 발전을 취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는 합리적인 질서윤리가 일상생활속에 보편화 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 각자는 「우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適材適所라는 말은 곧 「合當한 자리」를 중요시하는 말이다.地位에 따라 그 자리에 알맞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한다는 뜻도 된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위치秩序는 그같은 地位 문제 뿐만 아니라 장소의 이용, 차례를 지키는 문제, 경제적인 자기위치를 올바로 인식하여 처지에 맞게사는 문제등 자기가 있는 자리, 또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깨닫는 걸이 된다.

조화된 사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위치질서와 마찬가지로 役割秩序가 전제 되어야 한다. 제각기 안고 있는 사회적 직분을 훌륭하게 완수해야 한다. 직업이 각자 다르다해도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의 일을 철저히 수행하는 최선의 노력이야말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關係秩序라 할 수 있다. 누구든 고립하여 혼자 살수는 없다. 결국 자의든 타의든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엮어나가게 된다.

사회구성원 간의 합리적인 관계형성은 모름지기 단결과 발전의 바탕이 된다.

상호간의 관계가 협력아닌 갈등이 될때 사회는 불안해지고 퇴보한다.

이상에서 강조한 위치와 역할과 관계의 세가지 질서를 관념적인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국민각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범국민적으로 계도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사회정화위원회는 앞으로 범국민적 질서지키기 운동을 생활속에 토착화시키기 위해 신종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호응을 폭넓게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며, 그같은 사회풍토속에서 생활주변의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힘쓰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규제나 단속의 조치보다는 사회환경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질서 생활화를 용이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질서를 이탈하기 쉬운 특권층과 부유층의 출선수법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다.

연중무휴로 줄기차게 전개되어야 할 질서지키기 운동은 곧바로 전전사회를 앞당겨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 모두, 사소하지만 결국 파급효과가 큰것부터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생활 모든면에서 편안함과 몇몇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질서지키기 운동을 펼쳐나가야겠다.

그러기 위해 사회정화위원회는 사회의 조화를 깨뜨리는 각종 무질서를 철저히 퇴치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거리질서, 행락질서, 상거래질서, 그 밖에 각종 공중질서 등 주변의 질서부터 습관화되도록 계통과 개선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질서를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한 봉사나 헌신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고 나아가서 사회공동의 번영을 안겨주는 효율적인 방도인 것이다.